



대전세종정책엑스포 2018 & 대전세종여성가족정책포럼

“도시 재생에 젠더를 입히다”

“대전세종연구원은 대전과 세종의 도시병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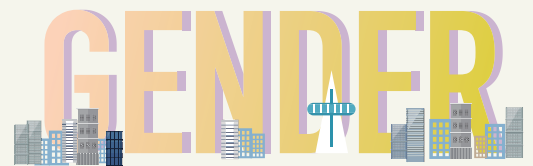
대전세종정책엑스포 2018의 시작을 축하해주기 위해 참석한 허태정 대전시장은 축사에서 대전세종연구원의 역할을 이렇게 표현했다. 대전세종연구원은 “도시병원”으로서 대전과 세종의 사회적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10월 24일과 25일 이틀간 『대전세종정책엑스포 2018』을 개최했다.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대전세종정책엑스포 2018의 일환으로

“도시 재생에 젠더를 입히다:도시 재생 사업 추진과 여성참여” 특별기획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강릉시 도시 재생 사업의 현황을 젠더 관점에서 분석한 김만재 교수(강릉원주대학교)의 발표와 대동하늘마을 도시 재생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오진주 위원장(대동아름다운마을만들기 위원회)의 경험담 발표, 그리고 여성 친화형 도시 재생의 추진 방향을 제안한 염인섭 책임연구원(대전세종연구원)의 발표에 이어 지정 토론자들과 청중들의 열띤 토론 및 질의가 있었다.



#주제 발표 1#

젠더 관점에서 본 강릉시도시재생사업



김만재 교수
(강릉원주대학교)

도시 재생이란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과 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도시 재생 정책은 경제와 효율을 강조하는 남성 의사 결정자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젠더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도시 재생 사업은 계획수립, 운영, 성과 측정의 세 가지 단계별로 젠더 고려사항의 검토와 적용이 꼭 필요하다.

강릉시의 도시 재생 사업 중에서 주문진 등대지구 새들마을 조성사업과 옥천동 일원 도시 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사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주문진 등대지구 사업은 2016년에 시작하여 2018년에 완성을 목표로 진행 중인 사업으로 빈집 정비, 소방 도로 개설, 위험구간 정비, 보안등 정비, CCTV 정비, 화재 예방 체계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옥천동 일원 도시 재생 사업은 원도심 지역 상권의 활성화 및 정체성 강화, 지역 일자리 창출, 골목 경관 개선 등을 목표로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이다. 이 두 개의 사업은 모두 낙후된 지역의 개선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공통적인 목표로 가지고 있지만 지나치게 물리적 환경만을 개선하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계획서 상에 젠더를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그리고 지역 주민 협의체도 성별 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무엇을 위한 도시 재생인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진정한 도시 재생을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간의 재구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여성 전문가로 구성된 협동조합 플랫폼의 구축과 이들이 도시 재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도시 재생 사업의 평가 항목에 젠더 고려 사항을 필수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당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동체 구성원, 특히 여성의 임파워먼트가 증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주제 발표 2#

세 아이의 엄마, 아름다운 대동을 꿈꾸다



오진주 위원장
(대동아름다운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 『하늘을 담은 행복 예술촌』을 그리다

· 대전시 동구 대동 1-74번지 일원이 대상지이며 20년 이상 노후화 된 주택 비율 95.3%에 달하고 동네 전체 주민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비율 20%, 즉 동네 5명 중 1명이 사회적 약자인 동네이다. 이런 동네를 공공 임대 주택, 달빛아트센터, 공영 주차장 조성, 예술촌 만들기 등의 뉴딜 사업으로 『하늘을 담은 행복 예술촌』으로 바뀌어나가고자 한다.

▶ 참여 그리고 성장

· 가족 뒷바라지, 육아로 외부 활동을 포기 하였으나, 복지관을 통해 마을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 및 주민과의 소통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고, 10년 이상 공동체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결과, 새로운 도전(뉴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아직도 여성의 사회 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이 남아 있지만 여성도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마스터플랜 발표



현장답사



대동 마을주민회의

젠더 관점을 고려한 여성친화형도시재생 추진 방향



염인섭 책임연구위원
(대전세종연구원)

▶ 여성 친화형 도시 재생이 왜 필요할까요?

여성이 참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시작한 것은 그 역사가 매우 짧다. 유럽에서조차 1900년대에 들어서야 논의 되었고 1960년대에 들어서야 다양한 사회적 흐름에 의해 인정되기 시작했다. 그만큼 남성 편의 중심의 공간들이 그동안 우리 사회를 채워왔다. 남성들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몰두한다. 이때 그 공간의 사용자에게 대한 배려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여성은 공간을 감성적으로 인식하며 그 공간에 자신들의 추억과 이야기를 채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성평등의 개념을 고려하기 시작하면서 도시 공간에도 젠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여성친화도시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도시 재생은 기본적으로 지역 쇠퇴의 원인을 해결하여 지역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일반적 도시 재생 사업과는 다르게 여성 친화형 도시 재생은 '사람'을 먼저 고려한다. 사회적 평등을 우선 해결하고 제도, 사업, 공간, 문화를 변화시키고자 한다. '성과'를 '사람'보다 우선하여 도시 재생을 실현한다고 한들 사회적 약자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단기간의 이익을 위해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 우리 자녀, 후손을 위해 공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성친화형 도시 재생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 여성 친화형 도시 재생은 어떻게 실현해야 할까요?

도시 재생에 젠더를 입히는 것은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주민들 스스로가 우리 동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도시 공간 속에 거주하는 주민들, 특히 여성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평등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실질적인 수요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평소 성인지적관점으로 지역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획과 도시 재생 사업이 젠더 관점을 반영하여 운영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관리가 필요하다.

#지정토론



김현채 관장
대동종합사회복지관

⊕ '대동'이라는 구도심 지역 특성상 여성리더, 참여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대동 아름다운마을 만들기 위원은 대부분 할머니들이 많다. 게다가 맞벌이, 육아와 같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도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우리 지역과 비슷한 환경의 다른 모든 지역들도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이다.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앞으로 대동에서 시작될 도시 재생 사업에 시작단계부터 젠더를 확실하게 입힐 수 있도록 마을 주민들과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선민 부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작년에 17개 지역의 도시 재생 심사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그 안에서 여성친화도시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다. 그 자료들에는 여성친화도시라는 단어 한마디만 써져 있었을 뿐 그 어떤 자료에도 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에 대한 배려는 담겨있지 않았었다. 또한 대다수의 관리자들도 도시 재생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성친화도시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표성의 확대가 있어야 하는데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장기간 유지 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마련이 시급하다. 그리고 현재 성별 통계가 작성되고 있으나 대전시의 모든 행정분야에 걸쳐 확대된 성별 분리 통계의 생산이 필요하다. 도시 공간은 살아 숨 쉬는 공간이다. 정책의 방향과 결과에 따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큰 영향을 받는다. 도시 공간에서 젠더를 반영해야 하는 이유는 대다수 도시 재생과 연결되는 지역들은 사회적 약자들이 거주하는 공간들이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들이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최성은 연구위원
대전세종연구원

⊕ 시민주권 속에 여성의 자리가 있는가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여성을 중심으로 성 주류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뒤에 도시 재생 사업이나 여성친화도시, 공동체 사업들이 하나의 컨트롤 타워 아래서 움직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민참여 리더 조직에 여성의 참여가 중요하다. 주민참여 조직 중에서도 예산을 사용할 수 있거나 중요한 결정을 하는 위치에 여성이 얼마나 있는지 고민을 해 봐야 한다. 두 번째로 마을 단위의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마을 거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할 시점이다. 단발적인 교육, 성과 측정용 교육은 지양해야 한다.

▶ 아산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여성친화도시 재생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 3년 넘게 공무원을 설득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과정을 거쳤다. 얼마전 사업 승인을 받고 나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담당부서에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그런데 제출한 과업지시서에는 여성친화적 관점이 한 문장도 없었다. 그래서 반려해서 다시 작성하도록 지시했는데 담당부서의 반발이 심했다. 약 한 달간의 다툼 끝에 여성 친화적 관점을 넣도록 하는데 성공을 했다. 도시 재생 사업에서 계획서는 교과서와 같다. 계획서에 여성 친화적 관점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중간에 젠더를 입히는 것은 매우 어렵다. 지속적인 관심과 요구가 없으면 바뀌지 않는다.



▶ 우리는 성매매 여성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지역이 최근에 도시 재생 대상 지역이 되면서 문제점으로 느끼는 것은 진행되고 있는 어떠한 도시재생사업을 봐도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특성은 한문장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기초조사를 할 때 어떠한 시각에서 조사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지역에 활동 주체가 있는데 주체들과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없었다. 도시 재생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마을 주민이 주체로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키워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흔히 얘기하는 마을 활동가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다. 또 마을 활동가 중에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리고 마을에 대한 관심은 여성이 더 높다. 그래서 도시 재생 사업이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마을 단위의 주체들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시 재생과 여성참여 2018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유성구 어은동 일별(Bees) Share Platform’ 모니터링 대상사업 2차 워크숍(10.24.)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2017년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선정된 대전 지역 3개 사업의 ‘여성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2차에 걸쳐 교육을 받은 모니터단은 동구, 유성구, 대덕구 등 대상지역별로 3인 1조로 나눠서 10월 한 달 동안 모니터링을 진행했으며, 조별 2차 워크숍에 참여했다. 2차 워크숍에서는 도시재생 전문가를 만나 대상지역 사업의 특징, 주민참여 현황 등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11월 중에 열릴 예정인 3차 워크숍은 2차 워크숍과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운영될 예정이며, 6일 유성구를 시작으로 20일 동구, 21일 대덕구 순으로 개최한다. 젠더 전문가와 함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민공동체와 여성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성인지적 관점에서 제안사항 도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활동을 공유하는 최종보고회는 12월 중 개최 될 예정이다.